

조선 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金 東 慶**

1. 머 리 말
2. 이성계의 마상무예와 군사적 기반
3. 「강무(講武)」와 Nerge(포위전술)
4. 병력의 정예화와 대열의(大閱儀)」
5. 맺 음 말 : 조선 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1. 머 리 말

조선시대의 진법훈련은 태조대에 시작하여 세종대에는 지방까지 확대된다. 진법훈련을 통해 중앙군의 기틀을 세운 정도전이 왕자의 난으로 숙청되었으나 태종대의 진법훈련은 정도전의 『진법(陣法)』을 토대로 하였다.¹⁾ 세종대에 이르면 중앙의 삼군이 진법훈련을 다시 실시하고,²⁾ 세종 3년에는

삼군이 『진도법(陣圖法)』에 의한 열병의식을 실시하기에 이른다.³⁾ 이후 진법훈련은 중앙군의 열병의식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대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수정된 이후⁴⁾ 『진도법』으로 간행되어 지방군에까지 확대되었다.⁵⁾ 그리고 강무(講武)와 대열의(大閱儀)라는 국가적 군사훈련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어 『국조오례의』에 정형화된 절차가 수립된다.

진법이란 군세를 배치하는 법칙으로 전투 시 진을 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진법에 관한 역사는 고대로부터 시작된다. 전쟁의 시기였던 삼국시대에는 일찍부터 『손자』나 『오자』 등의 중국 병서를 바탕으로 각 국에 적합한 진법을 개발하였다.⁶⁾ 특히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신라시대의 설수진은 당나라 장수인 이정의 육화진법에 영향을 받아 육진병법을 만들어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는 데 이바지하였고,⁷⁾ 신라 원성왕대에 간행된 『병법』과 『화령도(花鈴圖)』는 기록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병서로 알려져 있다.⁸⁾ 고려시대에는 가장 활발했던 대외활동 속에서도 『김해병서(金海兵書)』 단 한 권만이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져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⁹⁾ 그 실체를 규명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의 진법은 전쟁준비와 전쟁수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의 진법¹⁰⁾은 대규모 군의 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몽골

3) 『세종실록』 12권, 3년 5월 18일.

4) 『세종실록』 12권, 3년 5월 20일.

5) 『세종실록』 12권, 3년 7월 9일.

6) 육군본부, 『고병서해제』(육군본부, 1979), p. 17.

7) 서영교, 『나당전쟁사연구: 약자가 선택한 전쟁』(아세아문화사, 2006), p. 207.

8) 육군본부, 『고병서해제』(육군본부, 1979), p. 18.

9) 하차대, 『조선초기 진법서의 성격』(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p. 7.

10) 조선 초기의 진법은 『진법(陣法)』, 『진도법(陣圖之法)』, 『계축진설(癸丑陣說)』, 『오위진법(五衛陣法)』이란 병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 4가지 병서 속에 나타난 진법의 구조로 볼 때, 『진법』과 『오위진법』에 나타난 진의 구조는 대규모 군대의 수용을 상정하고 있고, 『진도법』과 『계축진설』은 비교적 소규모의 군대를 위한 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선 초기 전술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초기 진법들 간의 발전과 특징에 대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한 글임.

** 공군 작전사령부 전술개발과 교리 및 교범담당

1) 『태종실록』 권17, 9년 3월 21일.

2) 『세종실록』 12권, 3년 5월 8일.

군의 영향으로 고려군의 전통이었던 부병제가 무너지고 숙위군 위주로 군사력이 재편되었고¹¹⁾ 기마술과 궁술 중심의 개인전투기술이 중시되었다. 개인 전투력이 우수한 정예병 위주의 부대편성을 우선시하여 고려 전기의 '광군(光軍)'과 같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동원체제가 허실화되었다. 그 결과 고려 후기에는 홍건적, 여진족 그리고 복원 잔류세력의 대규모 침입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대규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병력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동원체제의 확립이 시급하였다. 그러나 동원에만 급급했을 뿐 훈련시키지 못한 군사를 전장으로 보낸 결과 또한 참담하였다. 따라서 병사들의 훈련과 체계적인 전투의 수행을 위해서는 진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군사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도전은 『진법(陣法)』을 통해 대규모 군대의 조직적인 전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인기술이 전투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줄 수는 있으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대군(大軍)에 의한 조직적인 전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총패(總牌)의 비율에 따라 대군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상한 『진법』의 구조를 통해 동원된 병력을 구성하여 좌작진퇴의 법을 가르쳐 조직적인 전투를 위한 군사훈련체계의 기초를 닦았다.¹²⁾ 먼저 좌작진퇴를 통해 군사들의 마음을 한 데 뭉치고, 이후 창·칼·활·화살을 이용한 전투기술을 연마하며, 강무(講武) 시 오진(陣)을 결성하여 이 두 가지 훈련과 기동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군사훈련을 상정하고 있어¹³⁾ 평화 시에 사냥을 통해 무사를 강습하고자 하

는 군사훈련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¹⁴⁾ 개인의 전투기술을 중시하던 당시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훈련절차를 통해 지휘법을 익혀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케 하고, 좌작진퇴와 병기를 이용한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전투방법과 전투기술을 습득케 하며, 좌작진퇴의 기본군사훈련과 병기를 이용한 전술전기 연마 이후 강무라는 대규모 기동훈련을 통한 체계적인 군사훈련의 단계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진법훈련에 대한 인식은 개국 초기 국내상황의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종실과 개국공신의 사병을 획일적인 진법훈련을 통해 중앙군에 소속시켜 공병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측면과¹⁵⁾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정비를 위한 방편으로 진법훈련을 파악함으로써 군사적 차원에서 분석보다는 사병혁파의 출발점이라는 정치적 측면이 강조되었다.¹⁶⁾ 그러나 좌작진퇴의 교육에서 시작한 진법훈련이 열무, 대열의, 강무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고, 중앙군의 정비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법훈련이 조선군에게 미치고 있는 군사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병력의 증가와 증강된 병력의 정예화라는 문제, 즉 대규모 병력의 유지와 이들의 질적인 향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진법훈련을 연결시키고 이 과정에서 조선군 내부에 나타난 군사전통의 변화를 강무와 대열의의 기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 자세한 내용은 김동경,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과 군사기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을 참고할 것.

- 11) 원 간섭기 고려군의 실태는 중앙군으로는 국왕의 숙위를 담당하는 성종애마, 지방군에는 몽골식 군제인 만호부가 운영되어 고려의 전통적인 군사조직 전체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김대중, 「고려 공민왕대 경군의 재건시도」, 『군사』 21호(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p. 68.
- 12) 정도전의 『진법』에서는 5진 체계를 이용하여 각 진에 총패를 두는 비율에 따라 2만에서 9만 명까지 수용가능하도록 병력의 규모를 상정하고 있다.
- 13) 『국역 삼봉집』, 제7권, 진법, 정진편.

14) 『국역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下, 정진편.

15) 하차대,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병법서의 발전」, 『한국군사사논문서집』, 제5권(국방군사연구소, 1999).

16)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사단법인 한국연구원, 1983).

2. 이성계의 마상무예와 군사적 기반

(1) 문헌에 나타난 이성계의 마상무예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훌륭한 전투기술의 보유자였다.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 탈환에 협력한 공으로 벼슬을 얻게 된 신흥무장 이성계는 흥건적과 왜구의 토벌과정을 통해 승승장구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우왕 말년 이인임 일파를 몰아내면서 문하시중에까지 올라 최영의 권력과 맞먹을 정도로 성장하였으며¹⁷⁾ 위화도 회군을 통해 최고 위치에까지 오른다. 이성계가 신흥무장에서 조선의 태조가 되기까지의 배경에는 마상무예와 궁술이라는 탁월한 무재(武才)가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성계의 전투기술은 『고려사』를 비롯하여, 『태조실록』의 「충서」 부분과 『용비어천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사료들의 성격이 이성계의 업적을 찬양하고 군사적 능력을 현란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을 지닌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다소 의심되고 있으나, 이성계의 전투기술을 나타낸 부분은 당시의 군사양식, 전투방법, 그리고 조선 건국세력에 대한 군사적 성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적장 가운데 나이가 15, 6세 되는 자가 있었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답다운데다가 효용이 비할 데 없었다. 흰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며 말달려 돌진하면 향하는 곳은 모두 쓰러져 감히 당해낼 자가 없었다. 아군에서 아기발도라고 부르며 다투어 피했다. (중략) 아기발도는 갑주, 호황(護項), 면갑을 썼으므로 활을 쏠 틈이 없었다. “내가 투구의 꼭지를 쏘아 투구를 벗길 테니 너는 바로 쏘라”하고는 말을 달려 활을 쏘아 투구를 정통으로 맞

히니 투구의 끈이 끊어져 투구가 비스듬히 벗겨졌다. 아기발도는 급히 투구를 바로했다. 태조가 다시 쏘니 또 꼭지에 맞아 드디어 투구가 떨어졌다. 이두(지)란이 쏘아 죽였다. 이에 적의 기세가 꺾였다.¹⁸⁾

이 사료는 1380년(우왕 6년) 진포(鎭浦)에 상륙하고 하삼도를 침입해온 왜구토벌의 과정에서 왜군장수 아기발도와 이성계의 전투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흰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고 말달려 돌진하니”라는 표현과 “목과 얼굴을 감싼 갑옷과 투구”라고 서술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아기발도는 화살로 제압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무장한 중기병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화살로 중기병의 갑옷을 뚫기 어려움을 간파한 이성계는 아기발도의 약점인 머리를 노리고 말을 탄 상태에서 화살로 투구를 정확하게 맞추어 투구를 떨어뜨리고 이두(지)란이 투구가 벗겨진 틈을 이용, 머리를 쏘아 사살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시내 가운데서 적장 한 명을 만났다. 그 사람은 갑옷을 입고 호황과 면갑을 한 외에 별도로 이갑(頤甲)을 만들어 입을 벌리기 편하게 했는데 전부 아주 굳게 보호하여 쏠 틈이 없었다. 태조가 일부러 그 말을 쏘니, 말이 발작하여 세차게 뛰자, 적이 힘주어 고삐를 당기니 이에 입이 벌어졌다. 태조가 그 입을 명중시켰다.¹⁹⁾

“매번 싸움이 무르익으면 적장 한 사람이 철갑을 입고 소꼬리를 장식한 붉은 깃발을 들고 창을 휘두르며 돌진하면 모두 쓰러져 감히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여 태조가 그 사람을 물색하여 혼자 상대하다가 거

18) 아기발도(阿其拔都)에서 아기는 어린아이를 부르는 방언이고, 발도는 발돌(拔突)이라고 쓰는데 몽골말로 용감하여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을 뜻한다. 이윤석, 『완역 용비어천가(下)』(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4), p. 11. 아기발도라는 이름을 통해 유추하건데 15세 정도의 소년장수 아기발도의 전투기술은 당시 고려군에게 대단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 이윤석, 『완역 용비어천가(中)』(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4), pp. 98-99.

17)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경세원, 2007), p. 272.

것으로 저서 달아나니, 그 사람이 과연 분명히 앞으로 나오면서 창을 겨누는 것이 매우 급했다. 태조가 몸을 뒤집어 말다래에 붙으니 적장이 맞추지 못하고 창을 따라 넘어졌다. 태조가 곧바로 안장에 걸터앉아 또 쏘아 죽였다.²⁰⁾

적 한 명이 태조를 창으로 찌르려고 하자 태조가 갑자기 몸을 기울여 마치 떨어질 듯하게 하고는, 올려다 보고 그 겨드랑이를 쏘고는 곧 말을 바로 탔다. 또 한 명의 적이 태조를 마주하여 활을 쏘자, 태조가 곧 말 위에서 일어서니 화살이 사타구니 밑으로 빠져나갔다.²¹⁾

위의 사료는 동북면의 홍원지역을 침입한 나하추 세력을 당시 동북면병마사 이성계가 격퇴하는 과정을 서술한 사료이다. 당시 나하추군에게 연패 하였던 까닭을 적장의 용맹성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이성계는 적장을 직접 제압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병력을 대동하여 적의 비장(裨將)들을 사살하고 적진을 흔들어 놓아 적의 사기를 꺾어 이들을 패주시켰다.²²⁾ 이성계가 적의 비장들을 사살하는 장면에서도 두꺼운 갑옷을 입은 적의 약점을 살피 궁술로 적장을 물리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궁술에 대한 다른 기록에서도 대우전 17발을 쏘아 모두 왼쪽 눈초리를 맞추었고, 대우전과 유엽전을 50여 발 모두 적병의 얼굴에 적중하였으며, 편전을 이용하여 70여 번이나 쏘았는데 모두 얼굴에 맞추었다고 나타나고 있어²³⁾ 이성계가 수준 높은 궁술의 보유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에 나타난 내용이 조선 개국의 업적을 이룬 태조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위정자들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개연

20) 이윤석, 『완역 용비어천가(中)』(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4), p. 97.

21) 이윤석, 상계서, p. 98.

22) 『동국병감』(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p. 400-401.

23) 『태조실록』 권1, 총서.

성이 농후하다. 적장의 창공격에 대해 이성계의 마상무예를 보여주는 장면이나 화살을 피하는 방법, 신기에 가까운 궁술이 표현된 모습들은 상식의 영력을 넘어 행동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현란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성계가 연거푸 쏜 화살이 정확하게 아기발도의 투구를 명중하는 장면, 이갑을 착용한 장수에 대하여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모습, 적장의 창술과 화살공격을 현란한 마상무예를 통해 회피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성계의 가별치로 활동하였던 이두(지)란의 활솜씨는 궁기병(Horse archer)의 전형적인 전투수행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성계가 적장의 창술과 화살을 피하는 모습은 마상재의 동작들과 흡사한 모습을 띤다. 『무예도보통지』는 1789년(정조13) 가을에 정조의 명으로 편찬을 시작하여 1790년에 완성된 병서로 이전 병서인 『무예제보』나 『무예신보』에 비해 마상무예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²⁴⁾ 마상무예가 추가된

[그림 1] 『무예도보통지』에 나타난 마상재



24)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362-365.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임진왜란에 의한 전법의 변화와²⁵⁾ 여진족의 발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²⁶⁾ 기병전력의 강화와 관련이 깊다.

『무예도보통지』는 마상무예의 시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석호(石虎)가 원숭이 형상의 옷을 입고 말을 달리면서 어떤 때는 말 옆구리에 혹은 말머리에 또는 말꼬리에 있기도 하여 원기(猿騎)라는 이름이 붙여져 마상재의 시초가 되었다.²⁷⁾ 석호라는 인물은 5호 16국시대의 석륵(石勒: 274-333)으로 유목민의 한 부류였던 흉노와 동족인 갈족이었기 때문에 마상재가 남달랐던 것이다.²⁸⁾ 또한 『무예도보통지』에서조차 말을 타는 것을 익힌다는 것을 원나라의 제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려시대의 격구 또한 원나라 제도를 본뜬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어,²⁹⁾ 마상재는 원나라 즉, 몽골의 군사기술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계의 마상무예와 궁술 또한 몽골의 기병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성계의 군사기반과 유목적 전통

이성계의 가계는 몽골과 인연이 깊었다. 전주에 거주하던 이안사는 지방의 화를 피해 삼척현에 거주하던 중 몽골의 야고군 침입 시 두타산성(頭陀山城) 전투에서 활약한 결과 고려정부는 이안사를 의주병마사에 임명하여

25) 『무예도보통지』는 임진왜란 시 왜군에 대항하기 위해 척계광의 절강병법을 도입하여 조선에 적용하는 과정을 조충이 가지는 위력의 측면보다는 왜군의 단병술이었던 검술에 대응하기 위해 편찬되었고, 기병이 추가되고 있는 것 또한 화약시대의 보병에 대한 타격력을 주기 위한 전법변화의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영구, 「조선후기 단병전술의 추이와 『무예도보통지』의 성격」, 『진단학보』, 제91호(진단학회, 2001)을 참조할 것.

26) 최복규,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무예론」(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p. 79.

27) 박청정 역, 『무예도보통지주해』(동문선, 2007), p. 503.

28) 박청정 역, 상계서, p. 704.

29) 박청정 역, 상계서, p. 504.

몽골군에 대하여 방비를 하도록 하였다. 몽골군이 고려에 대한 공세를 취하던 중 쌍성(영흥지역)이 개원로³⁰⁾로 편입되고 몽골군이 쌍성지역에 주둔하며 철령 이북 지방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안사는 몽골군에게 투항하고, 1254년(고려고종 41년) 개원로 남경의 알동(幹東)에 거주하게 된다. 알동에 거주하던 이안사는 원나라로부터 알동지역의 다루가치이자 천호장에 임명되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다. 유목민족의 경우 부족을 지배하는 권한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기보다는 지배자 개인의 용맹성이나 극심한 자연조건을 가진 지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족조직을 질서 있게 통솔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체제의 사회계층과 구분은 전적으로 개 개인의 군사능력에 좌우되었다.³¹⁾ 그러므로 이안사의 사후 천호장의 자리가 그의 아들 이행리, 그리고 이행리의 아들 이지춘에게까지 이어졌던 사실에서 볼 때,³²⁾ 이성계의 가계가 4대에 걸쳐 조선의 동북방지역에서 세력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개 개인의 군사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몽골족을 포함한 유목민들은 몽골고원, 투르크지방, 유라시아의 스텝, 만주지방의 산림지역에까지 분포하고 있다.³³⁾ 이성계가(家)가 정착한 알동지역 주민은 퉁구스(Tungus) 계통인 여진족으로 이들은 송화강·목단강·흑룡강 유역과 만주동부 해안일대의 산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목민의 한 부류였다.³⁴⁾ 여진족은 만주지방의 산악과 평야에서 수렵·어로·목축과 원시적인 농경생활을 주로 영위하였기 때문에 스텝지역과 투르크지방의 평원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유목민의 기질뿐만 아니라 산악지역을 바탕으로 습

30) 개원로는 원나라 때의 행정구역 이름으로 『태조실록』에서는 이 지역을 지금의 길림성과 요녕 남부의 땅으로 파악하고 있다.

31) 룩 관텐, 『유목민족제국사』, 송기중 역(민음사, 1984), p. 292.

32) 『태조실록』 권1, 총서.

33) Timothy May, *The Mongol Art of War: Chinggis Khan and the Mongol Military System*(Yardley: Westholme Publishing, 2007), p. 100.

34) 국방군사연구소, 『국토개척사』(국방군사연구소, 1999), p. 11.

득된 수렵기술을 추가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여진족은 금나라의 멸망과 함께 분열되어 만주일대로 이동하여 살고 있었으나 이들의 군사적 능력을 인식한 몽골군이 이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다.³⁵⁾ 몽골제국을 세운 칭기스칸이 숲속의 전사들을 이끌고 초원으로 나와 다른 유목민을 지배하였고,³⁶⁾ 후금을 세웠던 여진족도 만주지방의 유목민 세력을 규합하여 세운 왕조였던 것으로 볼 때,³⁷⁾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목민 개개인의 전투능력이 정착민의 그것보다 더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여진족의 전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초에 여진군에는 보병이 없고, 1천여 명의 기병만이 있었다. 작은 목패를 만들어 사람과 말에 달아 표지를 삼고서 50명을 1대(隊)로 만들었는데, 앞장서는 20명은 견고한 갑옷에 창으로 무장하고, 뒤에 배치한 30명에게는 가벼운 갑옷에 활을 잡게 한 다음, 적과 접촉할 때마다 반드시 2명씩 말을 타고 달려나가 적진의 허실을 관찰하고 나서 사면으로 대오를 편성하여 쳐 들어가 공격하되, 1백 보 밖에서는 일제히 활을 쏘게 한 바, 모두 백발백중이었다. 그리하여 병력의 분산·집합과 출격·퇴입의 행동에 있어 임기응변이 능하고 병사들 각자 능력대로 싸우게 하였으므로 항상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³⁸⁾

즉, 여진족은 산악지역에서의 기질을 추가적으로 지니고 있었을 뿐 평지에서는 다른 유목민족과 흡사한 군사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50명 단위의 기병으로 적과 정면승부를 할 경우 사면을 포위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적과 접촉하기 이전에 일제히 화살을 쏘는 마상궁술을 사용하였다.

35) 티모시는 유목적 성향과 농경생활을 하는 정착민족의 성향을 통해 여진족을 반유목족(semi-nomad)으로 분류하고 있다. Timothy May, 전게서, p. 101.
 36) 서영교, 『고구려, 전쟁의나라』(문학동네, 2007), p. 19.
 37) Timothy May, 전게서, pp. 101-102.
 38) 『병장설·진법』(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p. 140.

[그림 2] 유목민의 기사술 훈련(Qabaq)



마상 활솜씨와 기동성을 최대로 이용하여 적의 화력범위 밖에서 머무르며 치고 빠지는 전법과 적을 포위하여 외부에서 돌면서 적을 괴멸시키는 전법을 구사하기 위해 궁수의 사거리 내에서 전투를 시작하였다.

적의 전열을 붕괴시킨 후 결정적인 근접전을 수행하였던 몽골군의 전술 또한, 유목민의 사냥방법인 Nerge(포위전술)에 의해 평시부터 훈련된 결과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⁹⁾ 여진족의 전술이 몽골군의 그것과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⁴⁰⁾ 여진족 또한 보편적인 유목민의 사냥방법에 따라

39) Timothy May, 전게서, p. 76.
 40) 유목민의 군사적 전통을 전형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몽골군 또한 적군에 대하여 200~300미터 전방에서 일제히 화살을 쏘아 적의 대형을 붕괴시킨 이후 돌격하여 적군을 살상하고, 적군의 대형을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병력을 좌우로 분산시켜 전초부대가 전방으로 돌격하는 동안 좌·우익의 부대가 적의 측방이나 후방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위전술을 구사하였다. Timothy May, 전게서, pp. 71-76.

[그림 3] 파르티안 샷과 유목적 전통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Nerge와 Qabaq⁴¹⁾이라는 사냥훈련 외에도 ‘파르티안 샷(Parthian shot)’이라 불리는 기사술을 통해 유목민의 보편적인 군사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유목민의 사냥의식과 궁술은 유목민의 수렵생활을 통해 군사양식으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앞서 살펴본 이성계의 신기와 같은 마상무예와 궁술 또한 유목민의 군사양식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진어로 활(gabe) 쏘는 궁사(弓士)를 의미하는 가별치의 일부로 이성계를 따라 중군한 이두(지)란의 궁술 또한 유목민 개개인의 군사적 성향을 대표적으로

41) qabaq은 말을 달리면서 화살로 장대를 맞추는 기마궁술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3개의 장대를 두고 첫 번째 장대에는 전방샷, 두 번째 장대에는 측방샷을 마지막 장대에는 후방샷(backward shot)이나 파르티안 샷(parthian shot)을 훈련하고, nerge는 사냥감을 포위하여 주위를 맴돌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냥감을 사살하는 사냥법이다. Timothy May, 전게서, pp. 43-46. 조선의 무과시험 중 35보 간격의 5개의 표적 앞으로 말을 지나치면서 5발의 화살로 표적을 명중하도록 하는 기사과목이 있었는데, 이 과목이 qabaq과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경국대전』, 병전.

42) 이란지역의 파르티아인이 사용하던 전술. 퇴각을 가장하여 추격을 하는 적에 대해 전술력 상태에서 후방으로 궁술을 구사하는 전술로 두 손은 활을 잡고 발로 말을 조종하는 특수 마술이 가능한 유목민에게 나타난다. 파르티안 샷이란 명칭은 파르티아인이 로마군에 대해 승리한 이후 로마장군 크라수스가 명명하였다고 한다. http://en.wikipedia.org/wiki/Parthian_shot. 파르티안 샷으로 대표되는 수렵의 풍습은 고구려에서뿐만 아니라 이슬람지역에 걸쳐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성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오도리 만호, 할아 만호, 타운 만호 등 두만강 지역의 30여 명의 대추장들의 세력⁴³⁾ 또한 유목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여진족이었기 때문에 이성계와 그의 군사적 기반은 유목민의 군사기술을 근본으로 기병중심의 수준 높은 최정예 군사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성계의 군사적 기반이 되어 이성계의 군공에 큰 몫을 담당하였던 것이다.⁴⁴⁾

3. 「강무(講武)」와 Nerge(포위전술)

(1) 강무(講武)와 군사훈련

강무는 이성계가 보여준 바와 같이 개개인의 마상무예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조직적인 기병전술을 수행하는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 강무의 역사적 유래는 주나라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례』에서는 대사도가 봄·여름·가을·겨울사냥을 통해 무사를 연마하였고, 주 선왕은 사냥을 통해 병거와 보졸을 뽑아 주나라 중흥의 업을 이루었다고 한다.⁴⁵⁾ 이후 강무는 손자와 오기의 병법을 익히고 팔진법을 적용하는 수준까지 발전되었으나 진나라는 강무의 제도를 따르지 않아 대규모 군사를 훈련시키지 않았고, 한나라의 경우도 강무제도를 소홀히 한 결과 군사들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⁴⁶⁾ 역사 속에서의 강무는 평시에 군사를 훈련하여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군사훈련의 측면으로

43) 김구진,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 22』(국사편찬위원회, 1995), p. 332.

44) 박옥걸, 「고려의 군사력 확충에 관한 연구」, 『군사』 제21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0), p. 62.

45) 『국역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下.

46) 『태조실록』 권10, 5년 11월 30일.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강무는 세종대에 이르러 『국조오례의』를 통해 ‘강무의(講武儀)’라는 군례의식으로 제정되었다. 강무란 “국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정 지역에 출동, 그 지역에서 사냥하고 복귀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타위(打圍)라는 단순한 사냥행위가 아니라 군사훈련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강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⁴⁷⁾ 군사들에게 말 달리고 활 쏘고 찌르는 것을 익히도록 하고,⁴⁸⁾ 무기를 검열하고 좌작진퇴의 절차를 알게 하는 것이 강무를 하는 목적이었다.⁴⁹⁾

『국조오례의』에 나타난 ‘강무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강무 7일 전 병조에서 백성들에게 사냥법을 따르게 하고 강무장에 사냥표식을 한다. 사냥을 위해 부대를 나누고 어가의 진입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포위를 마치면 어가가 포위지역으로 진입한다. 어가 앞에 지휘용 북을 설치하고 동남쪽의 사람은 서향으로 서남쪽의 사람은 동향으로 말을 타고 몰이기병을 배치한다. 몰이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강무가 시작된다. 기병들이 임금 앞으로 짐승을 몰고 오면 임금이 가장 먼저 화살을 쏘고, 군(君)들이 쏘며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차례로 이를 쏜다. 기병이 몰이를 그치면 백성들에게 사냥을 허락하여 공식적인 강무행사를 마친다.

강무에 의한 군사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지리적 측면에서는 농경지 부족에 따른 수렵의 병행으로 문화적으로는 유목사회에서 나타나는 수렵경제의 의존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⁵⁰⁾ 한국 고대사회의 군사적 성향을 통해 유

47) 이현수, 『조선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군사』 제45호(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2002), p. 235.

48) 『세종실록』 권55, 14년 2월 21일.

49) 『태종실록』 권31, 16년 5월 23일.

50) 농경지가 부족한 고구려 정치지배자의 기본덕목이 기마궁술이었던 이유는 유목·수렵사회에서의 수렵활동과 관련이 있었고 고구려의 전투기술 또한 기동성에 바탕을 둔 기마전술이었기 때문이다. 김영하,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pp. 29-30. 건국의 주체세력이 부여-고구려계였던 백제의 경우 수렵의 전통을 잇는 차원과 제도적인 속성을 내포한 통치행위로서 강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김영하, 상계

추할 수 있는 강무시행의 특징은 사회경제적 기반과 군사적 성향 그리고 국가 정치지배자의 덕목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조선 초기의 군사훈련 과정이 좌작진퇴로부터 강무까지로 상징하고 있는 이유 또한 조선 초기의 전술이 수준 높은 개인기술과 기병중심의 기동성에 바탕을 둔 기동전술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군사훈련의 마지막은 개인의 전투기술을 대규모로 조직할 수 있는 강무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의 강무는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를 통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농경생활에 무익한 짐승들을 잡고자 하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유목과 수렵사회의 군사력을 근간으로 했던 건국세력의 군사양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2) 기병중심의 전술과 Nerge(포위전술)

『국조오례의』에서 나타난 강무의 모습을 군사적 용어로 축약하자면 포위와 섬멸로 표현할 수 있다. 몰이기병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작전지역을 신속히 포위하여 동물의 퇴로를 끊은 상태에서 그 포위망을 조금씩 좁혀 화살의 사정거리까지 이르면 포위된 동물이 탈출을 시도할 때 기회를 잡아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하는 것이다. 다만 강무에서는 사냥을 할 때 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목민의 조직적인 사냥법인 Nerge에서도 강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유목민들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통해 개인의 사냥 능력을 닦기 시작하였다. 사냥을 위한 훈련법은 Qabaq와 Nerge로 알려져 있는데, Qabaq은 말을 달려 활을 쏘아 막대기를 맞추는 것으로 막

서, pp. 40-42. 반면, 신라의 강무가 통치관행이나 군사훈련을 지향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신라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기반이 수렵의 전통이 마련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김영하, 상계서, p. 61. 농경사회를 지향하고 보병위주의 군사적 성향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강무보다는 열병위주의 군사훈련이 시행되었다.

대높이에 따라 위나 아래로의 조준훈련, 화살의 후방발사, 그리고 파르티안 샷 등의 구사를 위한 개인 훈련법이였다.⁵¹⁾

Nerge는 훈련된 개개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행하는 사냥법이였다.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산개하여 원을 만들어 그 속의 모든 동물들을 포위하는 대규모 사냥훈련인 Nerge가 가능한 까닭은 잘 정비된 의사전달체계, 포위망을 유지하는 원칙, 그리고 '칸(Khan)'이 허락하기 전까지 포위된 동물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유지하는 것에 있었다.⁵²⁾ 적의 퇴로를 끊고 이들을 다루기 쉬운 구역으로 몰아넣어 우두머리를 고립시키고, 어떠한 위협을 통해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여 주도권을 쥐는 것은 그들의 습성이 전술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⁵³⁾ Nerge는 몽골군의 포위전술로 이해되고 있으나 파르티안 샷이 유목과 수렵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Nerge 또한 병종의 구성에서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유목민족이 수행하는 전쟁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⁵⁴⁾ 다음의 자료는 야인의 포위전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야인의 포진(布陣)은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퍼져서 향오를 이루지는 못하나 저들이 많고 우리가 적을 때에는 에워싸기에 힘을 쓰고, 저들이 적고 우리가 많게 되면 형편을 따라 물러나면서 나무에 의지하고 돌에 붙어서 다투어 강궁을 쏘아대므로, 우리 군사는 별처럼 뭉치고 개미처럼 모여 적을 맞이하게 되며, 적의 화살에 맞아 인마가 많이 상하였사오니, 이는 병법에 꺼리는 바입니다.⁵⁵⁾

51) Timothy May, 전게서, pp. 43-44.

52) Timothy May, 상게서, p. 46.

53) 존 키건, 『세계전쟁사』, 유병진 옮김(도서출판 까치, 1996), pp. 234-235.

54) 몽골족의 군사적 능력으로 파악되고 있는 포위전술은 nerge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nerge를 수행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 경기병과 중기병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caracole과 nerge를 함께 사용하여 전술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은 몽골족뿐만 아니라 거란이나 여진족 또는 투르크 계열의 유목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Timothy May, 상게서, p. 47.

위의 사료는 세종 16년 4월 26일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가 야인의 전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들이 많고 우리가 적을 때에는 에워싸기에 힘을 쓴다”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진족이 포위전술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Nerge가 전장에서도 유목과 수렵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조선왕조의 창업자와 선조들의 발상지가 바로 한민족과 야인집단의 거주지역인 함경도였기 때문에⁵⁶⁾ 몽골과 여진족의 군사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은 조선 초기의 전투양식에서도 유목민족적인 전투성향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과저강 야인토벌에서 나타난 군사작전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토벌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내용 또한 Nerge와 강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포위와 섬멸의 과정이 나타난다. 다만 강무를 통해 포획하고자 하는 것은 야수를 비롯한 동물이었으나 과저강 야인토벌에서의 군사적 목표는 이만주의 포획과 과저강 일대의 야인들이였다.

과저강 야인토벌은 세종 14년부터 추진되던 국토확장의 일환으로 과저강 일대인 중국의 요녕성 환인현 훈강 일대를 1433년과 1437년 두 차례에 걸쳐 소탕한 군사작전이였다.⁵⁷⁾ 1, 2차에 걸쳐 수행된 과저강 야인토벌작전은 여진족의 소규모 침략에 대하여 소규모 병력으로 대응하고 요해지를 중심으로 청야입보에 근거를 둔 수비위주의 전술에서⁵⁸⁾ 기병중심의 비교적

55) 『세종실록』 권64, 16년 4월 26일.

56) 국방군사연구소, 『국토개척사』(국방군사연구소, 1999), p. 2.

57) 『서정록』(국방군사연구소, 1989), 서문.

58) 당시 변방방어에 대한 논의의 요점은 공격이나 수비나 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었던 가운데 세종은 당시의 장군들이 들판에서 교전하여 승부를 짓는 경향에 대한 주의를 주어 군세와 형세에 따라 교전할 것과 불리할 경우 청야입보의 방법을 따라 적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여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할 것을 지도한다. 『세종실록』 권79, 19년 12월 19일. 몽골이나 여진족과 같은 유목민들이 성곽공격에 취약함을 보이는 이유는 음식을 많이 가지지 않고 출전하여 장기전에 취약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입보시키고 무기를 갖추며 들을 깨끗이 치우고 기다리는 이른바 청야입보(淸野入保)의 방책이 유목민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세종실록』 권86, 21년 8월 28일.

대규모 병력으로 파저강 유역에 산재해 있던 여진족의 근거지를 기동과 포위를 통해 공격하였던 특별한 사례였다. 비록 이만주의 포획이라는 작전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토벌작전에서 보여준 작전계획과 작전수행의 모습은 강무를 바탕으로 훈련된 기병위주의 기동전을 수행하는 조선 초기의 군사양식을 엿볼 수 있다.

야인토벌 작전계획의 골자는 기동에 의한 기습과 포위전의 수행이었다. 기습이 성공하는 까닭은 공격징후에 대한 정보부재가 아니라 적시에 조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⁵⁹⁾ 당시 여진족들은 조선의 군사작전이 임박했음을 감지하여 산악지대로 올라가 조선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모여 살지 않고 파저강 유역을 따라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어서 공격에 대한 실제적인 경보체제를 가지지 못하였다.

널리 산재해 있는 여진족을 상대로 기습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을 통한 포위전의 수행이 적합하였다. 여진족은 기습에 대해 조직적인 체제를 갖추진 못하였으나 일단 침공을 받으면 특유의 기동력을 발휘하여 작전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어느 한 방향으로의 진공작전은 작전의 실패로 연결될 확률이 높았다. 한 번에 토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포위를 실시하여 고립시킨 이후 포위망을 좁혀 여진족의 토벌과 이만주의 포획이라는 작전목표를 달성해야 했던 것이다.

파저강 지역의 지세와 포위, 그리고 기습달성을 위해서는 기병위주의 병종이 구성되어야 했다. 파저강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야인의 부락을 동시에 공격하여 야인들 간의 상호지원을 막고 이들을 포위하여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천여 명의 병력으로는 어렵고 최소 1만여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⁶⁰⁾ 공격을 위한 진공로 역시 만포에서 우라산성으로, 벽동에서 압록강을 거쳐 우라산성으로, 그리고 감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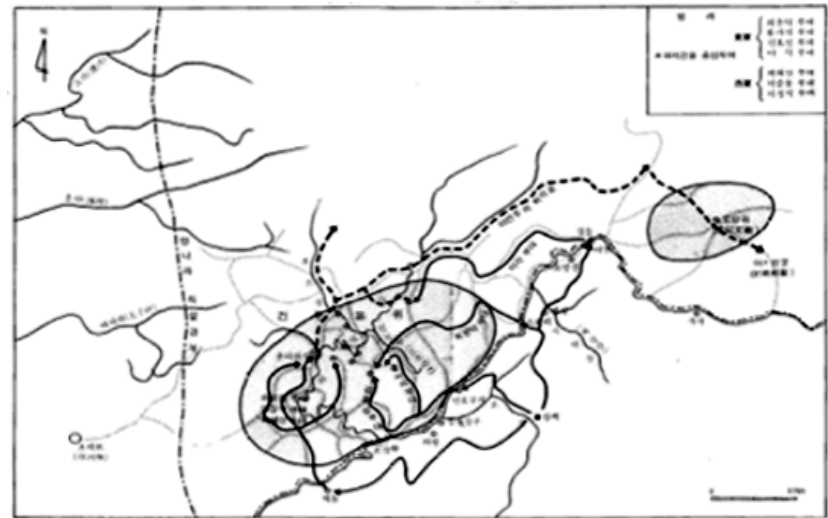
59) Richard K. Betts, *SURPRISE ATTACK: Lessons for Defense Planning*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2), p. 4.

60) 『세종실록』 권59, 15년 2월 28일.

서 도하하여 동서 양면에서 수색 및 토벌작전을 수행하기로 한다.⁶¹⁾

토벌에 참여한 병력은 평안도 정병 1만과 황해도 기병 5천으로 7개 부대로 나누어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순몽은 2,515명의 병력으로 이만주의 본거지로 진공하고, 최해산은 2,070명의 병력으로 거여방면으로, 이각은 1,770명의 병력으로 마천방면으로, 이정석은 3,010명의 병력으로 우라산성 방면으로, 김효성은 1,888명의 병력으로 임할라 부모의 거주지로, 홍사석은 1,110명으로 팔리수 방면으로, 최윤덕은 2,599명으로 임할라의 본거지로 진공한다.⁶²⁾ 7개 부대는 각각의 군사목표를 부여받고 진공함과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파저강 일대에 산재해 있는 여진족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것이었다.

[그림 4] 『서정록』에 나타난 1차 파저강 야인토벌의 진공로와 포위작전



61) 『세종실록』 권59, 15년 3월 7일.

62) 『세종실록』 권60, 15년 5월 7일.

파저강 야인토벌을 위한 군사작전이 포위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주장(主將)의 명령에 따라 포위망을 좁히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순몽과 이정석은 주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진공하였고, 최해산은 지정된 기일에 부대를 집결시키지 못해 애초에 상정했던 포위망에 구멍이 생겨 작전전반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⁶³⁾ 이는 동물의 퇴로를 끊고 포위망을 좁혀 사냥을 실시하는 강무의 수행에 있어 몰이기병 본연의 임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사례로 지정된 기일을 통해 정해놓은 포위망에 대해 개인의 군공과 기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위작전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벌전에 참여하였던 장수들이 많은 군공을 세웠으나 주장 최윤덕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자행동을 벌였던 결과 기일을 엄수하지 못한 장수들에게 그 죄를 묻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파저강 야인토벌의 목적이 그 일대의 여진족을 토벌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규율과 명령을 통해 조직적인 포위전의 수행을 지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Nerge라는 사냥법은 유목민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퍼지게 된 공통된 행사였고 강무는 사냥법을 적용한 대규모 군사훈련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강무와 Nerge의 절차 수행과정은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몰이기병을 통해 원거리에서 포위하고 그 포위망을 좁혀 동물의 퇴로를 차단한 다음 마상궁술로 동물을 사냥하는 전형적인 기동과 포위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몽골의 영향으로 인해 조선 초기 군사양식 또한 기병 위주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이러한 전통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보존되고 있었다. 즉, 조선 초기 군사훈련이 소규모 부대의 좌작진퇴에서 시작되어 강무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에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강무시행에 있어 개인의 전투력을 조직화하여, 정예병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⁶⁴⁾

63) 국방군사연구소, 『국토개척사』(국방군사연구소, 1999), p. 53.

64) 『태종실록』 권31, 16년 5월 23일.

4. 병력의 정예화와 「대열의(大閱儀)」

(1) 『오위진법』에 나타난 「대열의」

개인의 마상무예가 기본이 되고 있는 기병중심의 정예병력 양성을 위해서는 강무가 적합하였으나, 보병이나 동원위주의 병력과 기병중심의 정예병력을 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진법에 의한 열병의식과 같이 강무와는 다른 성격의 군사훈련 방법이 필요하였다. 조선 초기 진법 중 열병의식의 성격을 지닌 군사훈련에 대한 내용은 『진도법』에서 처음 나타난다. 『진도법』에서는 ‘교장’이라 하여 전투훈련장에서의 훈련절차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진도법』의 내용을 보강한 『계축진설』에서는 교장의 규격이 등장하여 ‘교장’에 관한 내용이 발전되고 있다.

또한, 『오위진법』에 등장하는 「대열의」는 이전까지의 진법발전을 기반으로 한 훈련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 ‘군대는 원래 일정한 형태가 없으나, 일시적인 의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교련하고 검열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한 내용으로 볼 때,⁶⁵⁾ 대열의는 기동훈련, 용병술, 병사들의 숙련도 등을 임금에게 검열을 받는 최고 수준의 군사훈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⁶⁶⁾

먼저 좌군과 우군은 교련장에서 방진을 이루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만약 대형을 변화시킬 경우 유군이 먼저 출동하여 대비하도록 하여 『진도법』과 『계축진설』에서 등장하는 유군의 활용을 적용하고 있다. 임금이 교련장에 도착하면 대장 → 각 5위장 → 각 5부장과 유군장 → 각 통장과 영장의 순으로 대열의 시행에 대한 명령과 군령을 전한다. 이후 대포를 발사하고 전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오위진법』, 『병장설·진법』(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p. 216.

66) ‘대열의’의 절차는 『문종실록』에 나타난 1년 6월 19일의 절차와 『오위진법』에 나타난 내용을 참조하였다.

각(戰角)을 붙면서 깃발로 신호하면 양 진영은 용겁과 승패의 형세를 취하면서 본격적인 전투훈련이 시작된다.

‘대열의’에 나타난 전투훈련은 용겁(勇怯)의 형세와 승패(勝敗)의 형세 모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용겁과 승패 모두 모의전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⁶⁷⁾ 용겁지세의 세 가지 형태와 승패지형의 세 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병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오진법체계를 이용한 정공법, 유군을 활용한 기병(奇兵)·정병(正兵)의 용병법, 보병과 기병의 합동작전, 매복과 기만전술, 수극화 원리에 따른 진법의 운용과 반격방법 등 조선 초기 진법발전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겁지세 1형은 양군 각 전위의 전통(戰統)과 유군(遊軍)에 의한 전투를 상징하고 있다. 양군은 전위의 각 5부에 속한 보·기전통(10통)과 5개 중 3개의 유군영을 보내어 전투를 시작한다.⁶⁸⁾ 전투훈련은 먼저 신기전을 발사하여 화력시현을 구사하는 한편 전위의 전투병력인 10통은 적군을 향해 전진하고 유군은 전통의 30보 뒤에서 같이 전진한다. 양군은 6~7회의 형식적인 접전을 수행한 후 후퇴신호에 따라 2~3보 물러나 대오를 정렬한 후 다시 접근하여 전투하기를 3회 실시하고, 이후 양군 모두 20여 보씩 물러날 때, 유군은 전통의 후방에서 전통이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영으로 귀환하는 절차의 연습을 보여주고 있다.

용겁지세 2형은 용겁지세 1형의 절차대로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승군과 패군의 대응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용겁지세 1형에 따라 출전한 양군의 부대 중 패한 부대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유군영장이 유군을 이끌고 나아가 패주하는 부대를 지원하고, 승세를 탄 부대는 유군영장이 유군을 이끌고 나아가 전과를 확장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즉, 용겁지세 1형이 무승

67) 군사편찬위원회의 『오위진법』에서 용겁은 소규모 단위부대를 상징한 것으로 승패는 대규모 부대협동 훈련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상계서, p. 217.

68) 전위는 5부 20통의 정규군과 5영의 유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겁지세 1형에서는 전위의 20통 중 10통(보통 5개, 기통 5개)과 유군 3영의 병력으로 전투훈련을 수행한다.

부를 가장한다면 용겁지세 2형은 승패가 결정된 상황에서 유군의 활용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용겁지세 3형은 좌·우군이 공격과 방어를 나누어 훈련을 시행하는 절차이다. 용겁지세 3형에서는 1형 및 2형과는 달리 전·좌·우 3위의 전 병력이 동원되어 양군 간 결전의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⁶⁹⁾ 각군 간의 전투 중 공격을 수행하던 군이 후퇴를 시작하면 수비군은 유군을 출동시켜 퇴각하는 부대를 추격하고, 퇴각 중인 군이 이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경우 추격하던 유군을 불러들이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유군으로 추격하여 적을 교란시키는 가운데 은밀히 좌위와 우위의 병력을 출동시켜 좌익과 우익으로 펼치면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면 수비군의 전통이 출동하여 후퇴하는 군을 섬멸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적의 본진까지 진출하여 본진에 대한 공격작전을 수행한다.

용겁지세에 나타난 절차는 『진법』에서 『계축진설』까지 용병의 원칙인 정병과 기병을 이용한 정공법에 대한 내용이 『오위진법』에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후방차단과 양익포위에 의한 발전된 용병법이 군사훈련을 위한 교범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용겁지세의 세 가지 형태는 정공법, 유군의 사용법, 퇴각시의 절차 등 기본적인 전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위의 병력으로 전초전을 수행하고 승세에 따라 유군과 본진의 병력을 동원하여 적군을 격퇴하고자 하는 소부대 기본전술과 소부대와 본진의 유기적인 작전 및 훈련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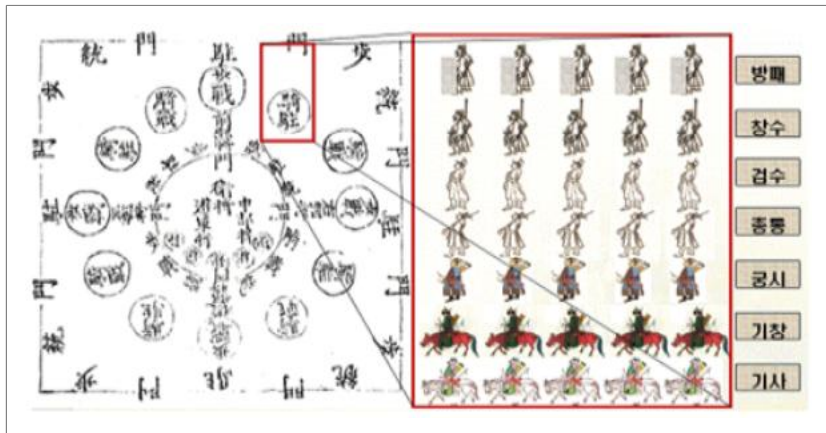
승패지형 역시 3가지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는 공격하는 적에 대한 반격(Counter Attack)의 성격을 띠고 있다. 승패지형 1형의 전초전 병력규모는 용겁지세 3형과 같이 전·좌·우위의 60통이 수행한다. 후퇴 중 유군이 후위대의 역할을 하지 않고 퇴각하면 승세를 탄 것으로 파악한 공격군의 부대(이하 객진)가 수비군의 부대(이하 주진)에 접근하면 퇴각한 주진

69) 용겁지세 3형은 1형과 2형이 전위의 10통만 전투에 참가한 것과 달리 전·좌·우 3위 15부 60통의 병력 전체가 투입되고 있다.

의 전통과 주통 모두 반격하고 유군마저 좌·우익으로 나누어 객진의 후미를 차단하여 적을 패주시키는 기만전술을 상정하고 있다. 이후 반격으로 승세를 탄 주진은 전 병력을 이끌고 객군의 진형을 공격하는 결전을 수행한다.

승패지형 2형은 조운진의 공격에 대한 방진의 대응전술을 시현하고 있다. 주군은 방진으로 객군은 조운진으로 편성하여 객군의 전 병력이 방진의 주군을 포위하여 공격하면 주군은 신기전으로 적에게 화력을 시현하는 가운데 각 위는 유군을 동원하여 각 방위의 적부대와 맞아 싸운다. 객군이 의병과 복병을 미리 퇴로상에 준비하고 거짓으로 패주하나, 주군은 추격하지 않고 수비한다. 다시 객군이 확익진으로 공격을 감행하면 주군은 장사진으로 대형을 변화시켜 객군의 중앙을 양분시키고 적장을 포위하여 객군을 패주시킨다.

[그림 5] 일위방진(一衛方陣)의 병종배치⁷⁰⁾



70) 진도법에는 창수·장검, 화통·궁노수, 기병창수, 기병사수로 분류하여 병종 간의 확실한 구분을 하지 않았으나 계축진설과 오위진법에는 이들의 병종구성이 확실해진다. 위의 그림은 진법의 원리에 따라 방진의 형태의 외벽과 4면 전체를 병종별로 나타낸 것이다.

승패지형 3형은 주군의 복병운용에 대한 내용이다. 주군과 객군 모두 행군대형으로 시작하고, 주군이 행군을 하는 가운데 곳곳마다 유군으로 복병을 설치하면서 진군하다가 객군을 발견 시 각월진의 대형으로 전환하여 공격하고 객군은 장사진으로 대응한다. 이후 주군이 거짓으로 패주하고 객군이 주군의 중위로 공격하면 주군은 진을 열어 객군의 공격을 허용하면서 객군 장사진의 허리를 절단하여 장사진의 선두를 포위하고 이때 복병을 운용하여 객군을 기습하여 결전을 유도하는 형태를 지닌다. 따라서 승패지형에 나타난 내용은 조선군이 여진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조운진, 화약무기의 활용(신기전), 진법의 활용 측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적전술에 대한 우군의 전술훈련을 보여주고 있다.

(2) 대규모 군대의 정예화와 진법훈련

‘대열의’에 나타난 6가지 훈련모형은 당시 조선군의 전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용검지세에서는 병력의 규모면에서 전위의 병력만을 이용한 전초전의 수행에서 시작하여 전투의 승패에 따라 본진의 대병력 운용까지 확장되고, 전술적 측면에서는 진격과 후퇴의 절차, 공격이나 후퇴 시 유군의 활용법, 그리고 후방차단과 양익포위를 통한 적병력의 격멸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승패지형에서는 전체 병력을 이용한 대규모 군대의 운용, 진법의 활용과 적의 진법에 대한 대응과 반격, 매복과 기만 등의 전술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법』과 『계축진설』의 정공법은 용검지세에서, 『진도법』과 『계축진설』에서 나타난 여진족에 대한 대응전술은 승패지형에서 반영되어 군사훈련을 위한 교범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진법의 발전이 조선군의 전술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전술의 발전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 여진족의 위협 증대에 따른 대응측면에서 『진도법』과 『계축진설』이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진법』과 『오위진법』은 명나라와 북방의 몽골족 흉기와 관련이 있어, 조

선 초기의 진법은 대규모의 군대를 수용하기 위한 구조와 지휘체계를 상정하고 있었다. 당시의 정세가 국가 간의 전면전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15세기 중반 이후 대열의가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다.⁷¹⁾ 대규모 군세의 침략에 대한 문제는 소규모 정예기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대규모의 동원병력에 대하여 평시부터 진법을 통한 지방군의 훈련을 위해⁷²⁾ 진법에 익숙한 훈도관을 여러 도에 파견하였고, 진법과 진도를 반포하여 각 도의 군사들로 하여금 연습하도록 하였다.⁷³⁾ 세종 30년에는 각 진의 군사들이 매월 3번씩 진법을 익히도록 하고 도절제사가 이들을 관장하도록 했다.⁷⁴⁾ 불확실한 북방의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진법의 훈련을 통해 동원 가능한 중앙군과 지방군을 정예화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 초기의 유목적 전통에 익숙해 있던 조선의 장수들은 개인의 용맹과 군사기술을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북방지역은 소규모 여진족의 개인전투기술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용맹이 더욱더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부대를 동원한 전투에서 장수의 자질은 개인의 용맹성과 전투기술보다는 얼마나 병사들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고 조직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느냐에 달려있었다. 열병 시 진법체계를 어지럽히거나 군사를 지휘하지 못한 장수들에게는 벌을 내리고⁷⁵⁾ 입번하는 군사는 진무소에서 진법을 익히고 해독하도록 한 것은⁷⁶⁾ 당시의 지휘관들에게 조직적인 전투수행을 위한 자질과 용병술을 심어주고자 한 조치였다.

물론 개인의 전투기술이 뛰어난 인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대를 편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으로 높은 군대를 보

유하거나 양성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성계의 가병으로 출발하여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던 갑사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녹봉 10만 석 중 63%에 해당될 정도로 막대하였기 때문에⁷⁷⁾ 갑사 3,000명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원 마련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⁷⁸⁾ 갑사는 스스로 말과 무기를 장비하여 숙위를 담당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 또한 고려되어야 했다.⁷⁹⁾ 갑사와 같은 정예병력은 군사기술 연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예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전투기술의 유지를 위한 개인적 부유함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는 유목 및 수렵활동이 군사기술로 연결되었던 유목민의 경우와 달리 농경생활의 환경 속에서 유목민의 군사기술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기병위주의 정예병력 증강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취약점을 지니게 된다. 기병의 군사적 능력은 산악지대에서는 소규모 조직으로 기습과 매복 그리고 포위를 장기로 하였기 때문에 평지에서 대규모의 병력과 화력으로 무장한 군대에 대해서는 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여진기병에 대응하기 위해 『진도법』과 『계축진설』이 간행되었으나, 이들 진법은 기병위주의 전투에 초점을 맞춘 결과 산악지대에서의 소규모 부대전술에 적합하였다. 그러므로 보병과 기병의 장점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⁸⁰⁾ 이후 북방 몽골족의 흥기로 인해 양적인 군사력 확보의 문제 또한 부각되었다.

양적인 군사력 확보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되어왔

71) 노영구, 「조선후기 한성에서의 열무 시행과 그 의미: 대열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호(서울학연구소, 2008), p. 8.

72) 『세종실록』 권12, 3년 7월 9일.

73) 『세종실록』 권12, 3년 7월 28일,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18일.

74) 『세종실록』 권122, 30년 10월 28일.

75) 『세종실록』 권34, 10년 1일.

76) 『문종실록』 권3, 즉위년 8월 23일.

77) 태종대 시행된 규정에 의거 갑사들에게 지급했던 녹봉은 쌀 63,000석, 배 21,600포에 달하였다고 한다.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도서출판 혜안, 2003), p. 31.

78) 『태종실록』 권16, 8년 10월 27일.

79) 『태종실록』 권19, 10년 3월 무진.

80) 『세종실록』 권64, 16년 4월 26일.

다. 유목민족의 경우 15세에서 60세까지 모든 부족민이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소위 '전민병역제'를 토대로 군사력을 확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⁸¹⁾ 생활자체가 군사력으로 전용될 수 있어 군사력의 질적인 측면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지속적인 전쟁수행을 위한 양적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을 자국의 군대에 지속적으로 편입시키고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농경국가의 경우에는 생활과 전투기술이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에 병력의 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했으나 이들에 대한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중국 진·한시대의 징집병제, 수·당의 부병제 등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제도는 병력의 양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반면,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군대를 적은 기간의 훈련에 의해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⁸²⁾ 따라서 조선 건국의 기틀을 정비한 『조선경국전』에서 병농일치를 강조하고 양병의 비용과 징병제의 단점을 피하면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은⁸³⁾ 병력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었다.

조선 전기의 정예 병력은 갑사였으나 『경국대전』에 나타난 중앙군의 병력에는 파적위, 등패, 대졸 등 다양한 병종과 함께 양인 농민의 의무병인 정병이 있었다. 성종 당시 42,500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정병은 조선의 중앙군을 이루는 여러 병종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열의'를 거행할 때 오위진에 편성시켰던 병종이었다.⁸⁴⁾ 파적위와 등패의 경우 잡역을 수행했던 병종이었기 때문에 정병이 '대열의' 거행 시 오위진의 위병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실제적인 조선의 전투력은 정예병력인 갑사와 대규모로 동원 가능한 정병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초기의 병력구조에서는

81) 국방군사연구소, 『몽골군의 전략·전술』, 김순규 역(국방군사연구소, 1997), p. 7.

82) Chi-ching Hsiao,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uan Dynast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p. 4-5.

83) 『국역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下.

84)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사단법인 한국연구원, 1983), p. 160.

갑사를 비롯한 정예기병과 대규모 동원을 위한 보병을 함께 고려해야 했던 것이다.

문종대에 간행된 신진법은 기병과 보병의 장점을 두루 갖추도록 하고 있었다.⁸⁵⁾ 신진법은(오위진법) 5위 5부 4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병과 보병의 장점을 취하여 정예병의 능력과 보병의 체계적인 전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1개의 부를 4개 통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4개의 통을 보병과 기병 각각 2개의 통으로 구성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물론 4개의 통을 모두 확실적인 병력수로 편성할 수는 없지만 편제만큼은 기병과 보병의 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보병의 화력이 중요시된 결과 오위진법의 체제가 무너지고 보병전투를 위한 척계광의 기효신서가 조선군의 훈련교범으로 정착됨에 따라 기병의 편제는 전체병력의 20% 이하의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⁸⁶⁾ 『오위진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4통의 구성은 기병과 보병의 편제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위진법』의 서문에 오위진법이 번병과 한병의 장점을 겸하고 기와 정(정)의 변화를 다하였다고 하는 내용은⁸⁷⁾ 4통이라는 병력구조를 통해 개인의 전투기술이 뛰어난 정예기병과 대규모 전투에 유리한 보병의 장점을 고려하여 정병(正兵)과 기병(騎兵)을 통해 정병(正兵)과 기병(奇兵)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85) 『문종실록』 권8, 1년 6월 19일.

86) 숙종8년 훈련도감의 편제에서는 보병이 26초(哨)인데 반해 기병은 6초(哨)로 기병의 구성은 전체 병력의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김종수, 전제서, p. 92.

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오위진법』, 『병장설·진법』(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pp. 165-166.

5. 맺음말 : 조선 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 훈련

이성계 군사기반의 일부가 되어 조선 건국에 큰 도움을 주었던 여진계 귀화인들로 인해 조선의 전투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고려 말기 북방의 몽골세력과 남방의 왜구의 침입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이성계의 군대로 인해 이들을 격퇴할 수 있었다. 이성계와 그의 가병들의 군사적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렵과 유목에 단련된 수준 높은 기병들이었다. 이들은 생활환경에 의해 사냥법을 터득한 결과 전투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군사훈련 없이도 군사작전이 가능한 집단이었다.

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병농일치를 지향하였다. 양병의 비용이나 징병의 소란함이 없으면서도 위급한 사태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병역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당시 이상국가인 주나라의 정예군대를 본받고자 하였다.⁸⁸⁾ 경제활동은 농경문화를 지향하되 군사적 능력은 유목문화의 정예병력을 지향하고자 했던 것이다.

병농일치를 지향한 조선이 유목민의 전투력을 육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대규모 사냥활동인 강무를 통해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정도전은 진법훈련의 외방 확대를 통해 군사들에게 형명에 의한 좌작진퇴의 연습을 시켜 군사훈련의 기본을 익히게 하고, 강무를 통해 병기의 점검과 훈련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강무에서의 진법은 군사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적인 행동의 교리와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유목 및 수렵민이 갖고 있는

88) 정도전은 주나라의 군대가 사력(詐力)을 숭상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나라가 기만술과 용병술이 뛰어난 기병을 보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역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下.

군사적 장점을 정착민에게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몽골의 영향을 받은 결과 조선 초기의 군사전통의 중심에는 이성계의 마상무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예기병과 이들을 조직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술훈련-강무-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유목민의 군사기술을 지향했으나 점차 농경문화에 길들여진 조선군은 유목 및 수렵을 생계로 하는 유목민의 군사기술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정예기병 전력을 고수하였던 조선 초기와는 달리 조선의 상황도 변화되기 시작하였다.⁸⁹⁾ 특히 연산군대에는 강무의 군사적 기능보다 유희를 위한 사냥행사로 전락되기도 하였다.⁹⁰⁾ 또한 삶의 방식의 변화는 수준 높은 정예병력의 양성에 차질을 일으켰다. 조선의 건국에 협력하였던 여진세력들은 조선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사의, 이정옥, 그리고 이시애의 난에 의해 조선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갔고, 조선 초기의 국제정세 또한 소규모의 정예병력보다는 대규모의 동원병력을 필요로 하였다.

총력전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의 확보는 가능하였으나 현실적 전력을 유효적절히 운용하느냐의 여부는 교육훈련의 질에 의존하기 때문에 동원병력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군사훈련체계가 필요하였다. 세종대에는 『계축진설』을 군사훈련의 교범으로 사용하였으나 '토목의 변' 이후 몽골세력의 흥기로 새로운 군사훈련의 교범이 필요하게 되었고, 문종대 간행된 『오위진법』은 부대편성에 있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다.

『오위진법』은 번병과 한병의 장점을 겸한 진법이었다. 번병은 기병에 의한 속전에 유리하고 한병은 궁시를 이용한 지구전이기 때문에⁹¹⁾ 기병 2통

89) 태종은 재위기간 동안 23회, 세종은 30회, 세조대에는 9회의 강무가 시행되어 강무는 개국 초기에 활발하게 시행되다가 세조 이후에는 성종대 6회로 현저히 횡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현수, 「조선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군사』 제45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239-250.

90) 연산군대의 강무에서는 진법연습을 중지시키고, 강무행차의 앞과 뒤에서 북과 피리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여 군사훈련이라는 강무 본연의 모습에서 사냥이라는 유희를 위한 행사로 변모하게 되었다. 『연산군일기』 권62, 12년 4월 12일.

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전게서, p. 165.

과 보병 2통으로 구성된 『오위진법』의 병력구성은 기병과 보병 편성의 균형을 유지하여 각 병종의 장점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여진족에 적합한 『계축진설』의 장점을 취하고 대규모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지구전에 강한 보병 또한 고려하여 균등한 병종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예병과 동원된 보병을 위한 배려가 깃들여 있는 진법이였다.

개국 시 명과 몽골의 대규모 침공에 대한 우려, 여진족 활동의 전개, 그리고 신흥몽골세력의 대규모 침공이라는 국가적 문제와 보조를 같이하여 조선 초기의 진법 또한 『진법』, 『진도법』, 『계축진설』, 그리고 『오위진법』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조선 초기 진법은 군사적으로는 전쟁의 형태가 소규모 분란전을 진압해야 하는 빠른 기동위주의 전투에서 대규모 부대를 통한 결전방식으로, 전쟁수행의 모습 역시 국지전에서 전면전 내지는 총력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기병위주의 질적인 정예병을 지향하되 양적인 군사력 확보라는 딜레마에 의해, 정예기병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동원병력이 꺾어야 하는 조선군의 현실과 개국 시 조선군의 성격이 변화해 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에 간행된 4가지의 진법을 통해 조선군의 전쟁수행 방식과 전술변화에 따른 조선의 군사전통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09. 11. 11, 심사수정일 : 2010. 1. 11, 게재확정일 : 2010. 2. 9)

주제어 : 진법(陣法), 진도법(陣圖之法), 계축진설(癸丑陣說), 오위진법(五衛陣法), 여진, 타타르, 오이라트, 강무(講武), 대열의(大閱儀), 오위-오부(5衛-5部), 오위-오부-사통(5衛-5部-4統), 사통(4統)

<ABSTRACT>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 Traditi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Military Training of the *Jinbeop* (陣法)

Kim, Dong-kyoung

The *Owiejinbeop*(五衛陣法)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culmination of military philosoph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omposes the balanced structural military formation between cavalry and infantry. Along with na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concern about massive invasions from Ming, China and Mongol Tribes (Tartary, Oirat), military formation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developed from *Jinbeop*(陣法), *Jindojiibeop*(陣圖之法), *Gechukjinseol*(癸丑陣說), to *Owiejinbeop*(五衛陣法). As such military formation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military perspective, transformed from mobile warfare that suppresses local limited warfare to decisive warfare by massive forces. It can be shown that way of war also changed from local conflict to total war. In cultural perspective, Agricultural settler's of the Joseon Dynasty faced the dilemma when pursuing Nomadic military tradition to secure large quantity of military manpower in terms of high-quality cavalries, and the Joseon Dynasty's military characteristic changes to that of settlers. Therefore, it can be referred that paced with development of military formati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Joseon's way of war-performance and military tradition is transformed.

Key Words : *Jinbeop*(陣法), *Jindojiibeop*(陣圖之法), *Gechukjinseol*(癸丑陣說), *Owiejinbeop*(五衛陣法), *Jurchens*, Tartary, Oirat, The Training of the Art of War(講武), The Royal Ceremony of Grand Military Training(大閱儀), The Five-five Formation System(5衛-5部), The Five-five-four Formation Structure(5衛-5部-4統), The Four sub-formation System(4統)